

# 道德의 動機와 利己

金 洛 中

차 레

## I. 序 論

### II. 本 論

- (1) “道德的”의 意味
- (2) 왜 道德的이어야 하는가?
- (3) 當爲의 認識과 動機誘發
- (4) 利己主義의 評價

### III. 結 論

## I. 序 論

‘사람들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나?’ ‘우리는 왜 옳은 것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一見 시시한 듯 하다. 法則主義的 觀點에서 해석한다면 위의 물음은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가?’ 라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시시한 듯한 문제라도 철학자로서는 문제삼지 않을 수 없으며 짚더미를 헤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작업과 찾아낸 즐거움을 좇음은 철학자의 기질에 속한다.

Platon 은 Republic 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함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더 나은가?’<sup>1)</sup>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이상한 듯한 질문을 本意대로 옮긴다면, ‘도덕이 명령하는 바와 利己<sup>2)</sup>가 추구하는 바가 어느 경

1) Plato, The Republic (tr. H.D.P. Lee), p.357 Penquin Books Co., 1967

2) 여기에서 利己란 self-interest 를 말하며, 그것은 개인적 복리 또는 행복을 뜻하며, selfishness 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하여 ‘利己’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selfish, egoistic egotistic 등의 형용사가 가지는 뜻과 잘 구별해야 한다.

우에 있어서나 일치하느냐?는 질문이겠는데, Platon이 진실로 보여주려고 한 내용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야 하는 바—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주장이며, 이는 어떤 행동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 즉 의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 도덕적이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결국 道德과 利己의 갈등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에는 의무의 수행이 행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도덕이 요구하는 바와 이기가 口述하는 바가 충돌한다.

그런데 Kant에 이르러 道德哲學이 目的論的 理論에서 法則主義的 說로 넘어간 이래, 이기주의의 공격이 도덕철학자로서의 出港申告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公利主義者의 입장에서조차 이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오늘날 不信社會에서 권력과 금전의 추구로 무분별한 경쟁 상태에 빠져있는 人心에 대하여 도덕가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은 즈음, 도덕과 이기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데 있어서, 이기주의를 공격하는 입장에 선다면 더 이상 이룰 필요가 없는 헛된 작업을 벌리는 것이겠으며, 그것을 옹호하는 한 지탱되기 어려운 입장을 스스로 떠맡는 못남을 들어내게 된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기적인 충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기주의는 하나의 ‘私的 道德’<sup>3)</sup>—더 婉曲하게 표현한다면, 하나의 ‘行動 指針’—으로서 우리들의 (도덕) 생활을 지배할 것이니, 이기주의를 하나의 윤리학설로 받아들일 가능성 與否를 검토하는 것은 現今에서도 전혀 가치없는 노력은 아니다.

Moore가 自然主義的 誤謬를 지적한 이후에 현대윤리학은 日常言語의 의미 분석을 일삼는 철학자들에 의하여 다듬어져 왔지만, 철저하게 개념 분석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메타윤리학자들에게 있어서도 Kant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sup>4)</sup>, Kant를 공격하는 이의 철학 내용에서 Kant철학을 전부

3) ‘私的 道德’이란 말 자체가 모순인듯이 여겨지고, 남에게 薦擧하기 곤란한 것이긴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원칙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 그 말을 사용했다.

4) 현대 윤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言辭(term)가 명령적의미, 혹은 규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믿으며, Kant가 주장한 ‘보편화의 요구’는 도덕판단의 명제가 성립하는 필요조건으로 여겨진다.

제거한다면 윤리학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 그러나, 本稿에서 도덕의 동기를 다름에 있어서 구태여 Kant와 관련시키지 않더라도 Kant 윤리학의 脆弱點은 자연히 들어나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本稿를 전개하는 데 앞서, 전통적으로 대립되어온 윤리학상 여러 견해들 중의 어느 특정한 자리에 서려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相反된 견해들이 兩立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싶은 것이 論者의 마음임을 밝힌다.

## II. 本 論

### 1. ‘道德的’이라 함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道德’의 뜻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文化人類學的 혹은 사회학적 개념의 借用이 불가피하겠지만<sup>5)</sup> ‘도덕적’이라는 말을 ‘도덕에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서 설명하자면, 이미 밝혀진 도덕의 定義와 함께 ‘명령’ ‘법칙’ ‘규율’ 등의 술어의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술어들을 편의상 사용함이 법칙주의적인 입장을 受託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이라 함은 ‘규칙을 따른다’ 혹은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뜻하나, 이러한 규칙은 모든 사람이 준수하여야 하며, 또 그것은 모든 사람의 善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sup>6)</sup>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어느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예외를 마련할 수 없음을 시사하나, 그렇다고 Kant가 생각하듯이 모든 道德律이 예외없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함은 잘못이다. 어떤 사람이 규칙이 적용되는 한계와 그것이 허용하고 있는 예외를 알지 못한다면 규칙을 안다고 할 수 없고 그는 온전히 규칙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

도덕율이란 그것에 입각하여 예외없이 행동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5) Kant는 도덕, 혹은 윤리학의 Autonomie를 주장했지만, ought, good, 등의 윤리학적 술어가 도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원래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二次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6) Kurt Baier, The Moral Point of View, 1958 reprinted in Readings in Ethical Theory, 1970, p. 477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sup>7)</sup>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차별없이 가르쳐지고 알려져야 한다. 秘傳의 道德이란 述語上 모순이다.

그런데, 도덕율은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이겠지만, 개인들의 이기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도덕율은 상호 이익을 존중하도록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며, 도덕적이라 함은 서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도덕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의 욕구와 행동이 조화하는 과정을 助長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무자체로부터의 論點과 福利의 考慮로부터의 論點으로 대립되는 오래 된 논쟁의 명백한 兩極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한편, 도덕적인 당위는 그것이 스스로 賦課하는(self-imposed)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도덕율을 채택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각자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함이 '도덕'이란 말의 內包의 일부이다.<sup>8)</sup>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 함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리까지를 고려하며 행위자 자신에게 실천적인 필연성으로서 스스로 부과하는 의무를 따름을 의미한다.

## 2. 왜 道德的이어야 하는가?<sup>9)</sup>

### a. 利己

우리가 왜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견해는

---

7) 명령은 그것이 적용되는 기회의 범위에 따라, 혹은 명령받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라 다소간에 보편적이기 마련이다. 행위자에 관한 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어느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은 같은 상황하에서 다른 사람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기회에 관한 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함은 요점을 잃은 것이다. '살인은 어느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거짓말을 함은 언제나 나쁘다'라는 주장은 늘 타당한가?

8) Nowell-Smith Ethics, p.210, p.320.

9) 이하 네가지 분류는 John Hospers, Human Conduct, reprinted in Readings in Ethical Theory 에 의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며, 이것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철학자들이 지녔던 신념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직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데, 정직함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정직함으로써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도덕은 啓發된 利己(enlightened self-interest)의 한 방편으로 나타난다.<sup>10)</sup> 사실상, 그것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유 중에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다.

Platon은 참으로 도덕적인 것과 참으로 어떤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은 일치된다고 믿었다. 왜냐 하면, 그 둘은 다 그를 실현으로 이끌기 때문이다.<sup>11)</sup> Platon과 함께 Butler도 i) 엄밀한 의미에서 옳은 행동은 행위자에게 유익하며, ii) 어떤 행동이 옳음을 알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행동하지 않으며, iii) 그 자신에게 다소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욕구가 思慮 깊은 행동의 유일한 동기라고 믿었다.<sup>12)</sup>

도덕적으로 행동하여 —혹은 옳은 것을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은, 요컨대, 도덕이 행복을 위한 충분조건 혹은, 적어도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란 Platon이 생각하듯이, 인간 영혼의 內的 상태가 조화함으로써 自己實現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들 밖에 있는 세력들의 慈悲에 의존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함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도끼는 罪人에게 뿐만 아니라 義人을 향하여서도 떨어진다. 도덕적인 사람이 늘 행복하지는 않지만, 부도덕한 사람은 늘 불행하다는 명제는 도덕이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표시한다. 그런 주장은 흔히 不正蓄財者나 汚吏가 행복하게 사는 듯 보이지만, 心理적으로 그는 늘 罪責感이나 自虐的인 複合(masochic complex)에 잠겨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사실을 支持理由(supporting reason)로 내세운다. 그

10) *ibid.* p.731

11) Platon은 인간의 영혼을 理性的 요소와, 意性的 요소와, 欲情的 요소로 나누었으며, 그러한 세 요소가 전체 인격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잘 담당함으로써 자기 실현에 이르며,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12) Prichard, *Duty and Interest*, reprinted in *Readings in Ethical Theory* p.700.

그러나 어떠한 인간적인 장점과 인간적인 행복 사이에 정당한 比例關係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한편, 복수나 制裁(sanction)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報償을 기대하기 때문에 도덕을 따르는 것도 이기를 추구하는 動機와 같다. 水災民을 위한 義捐金을 내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한다든가 열심히 일하면 勤勞褒賞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분명히 전혀 순수하게 도덕적인 一法則主義者들이 주장하듯이— 동기는 아니다.

인간의 동기는 여러가지이다. 그가 도덕적으로 행동함도 어느 때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존경을 받기 위하여, 法の 拘束力과 사회적인 埋藏을 두려워하여, 혹은 순수하게 남을 돕기 위한 동기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동기를 自己中心的(egocentric), 利己的(self-interested)으로만 보는 입장은 그릇되다.

#### b. 神의 命令

Platon 이 地上에서 福德이 一致함을 보여주려는 試圖는 可望없는 것이었다. 착한 사람이 불행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행복하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來世를 인정함으로써 비록 現世에서 德이 늘 보상받지 못하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는 덕이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리리라는 희망에서 도덕적이기를 택하기도 한다.—「우리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상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벌주실 테니, 우리는 옳아야 한다.’ 이런 동기는 이미 神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나, 死後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가능하며,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순간 도덕적이어야 할 단 하나의 理由는 사라지는 셈이다. 이런 동기는 사실상 이기에서 나온(self-interested) 것이거나, 이기적인(selfish)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刑罰의 두려움이나 行賞의 바람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敬拜하는 神을 사랑하고 찬미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신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무조건 복종을 賦課하며, 그가 원하는 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함

은 신이 우리의 創造主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가 善한 분이라야 된다는 사실이 附加되어야 하며, 이것은 물론 신이 실재해야만, 혹은, 적어도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해야만 가능하다.

### c. 公 利

우리가 어느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놀이를 즐길 때에, 우리가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경기를 즐긴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경기를 즐길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은 競技進行을 계속시키고 참가자들이 그것을 즐기기를 원함을 뜻한다.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함은 그리하여 相互 이익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부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보다 분명히 더 낫다. 도덕적인 사회란 構成員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더 큰 善—이익—속에서 자기의 몫을 가질 수 없는 사회를 뜻한다. Cook Wilson은 Platon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우리가 구성원인 사회의 선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사회의 선은 우리의 것’이라고 再解釋하였다.<sup>13)</sup> 正義란 사회에 관한 收益에 관계된 개념이다.

### d. 옳으니까

인간이 여러가지 동기로부터 행동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옳은 것을 하려는 동기가 지배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목적론자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데 반하여 법칙주의자들은 동기를 중요시하며 의무로부터 나오는 동기를 강조하며, 또한 前者가 대체로 善음(good)’의 의미를 먼저 분석하는 반면에 後者는 옳음(right)’을 原初的인 개념으로 내세운다. 단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동기만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견해는 법칙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Kant는 옳은 행동을 옳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택하는 善意志만이 본래적

13) Prichard, op. cit. p. 694

으로 선하며, 그것은 행위의 필연성으로서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기 위해서는 도덕율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도덕율 자체에 대한 존경으로 행동되는 것이어야 한다.’<sup>14)</sup> 그러한 도덕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準則과 구별된다—어느 경우에서나 타당한—假言命法과 구별된다—定言命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定言命法(kategorische Imperativ 絕對命令)의 내용이 무엇이나는 것도 밝히지 못했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경우에도 예외없이 타당한 도덕율은 無理이며, 좋음이 그 자체로서 선하다는 가정도 납득하기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영혼 불멸과 신의 존재를 요청한 배후에는 善意志를 지닌 有德한 人格者가 그 덕에 알맞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바라는, (좀 더 비약적으로 말함이 허용된다면)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동기를 暗暗裡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直覺論者<sup>15)</sup> 이면서도 目的論的 입장을 취하는 Moore는 ‘옳음’을 ‘좋은 결과의 원인’<sup>16)</sup>이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옳은 행위는 최상의 결과를 향한 것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이 이기주의와 구별되는 것은 행위의 타당한 목적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 Moore의 입장은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움을 들어낸다. Spinoza는 ‘德이 그 자체의 報償’이라 했거니와, 왜 사람들은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억지로 일하는 일꾼처럼 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만 하는가?<sup>17)</sup> 그러나, 그덕이 실제적인 效用性을 지니려면, 어떤 제재와 報酬를 保障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왜 도덕적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자체가 부자연하거나 부도덕 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14) Kant,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Metaphysics of Ethic (tr. Abott), 1949 p.4

15) Sidwick는 윤리학설을 Egoism, Utilitarianism, Intuitionism으로 나누었는데, 직각론자의 기본적인 가정은 행위의 결과와 떨어져서 그 자체로서 옳고 합리적인 행동이 무엇인가를 아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16) G.E. Moore, Principia Ethica p.147

17) John Hospers, op. cit. p.745



지 모른다. 그러나, 理性的 存在者는 스스로 묻고, 반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제까지 도덕의 동기를 네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지만, 그 네가지 중의 어느 하나만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섞여 함께 작용하나, 동기가 충돌할 때 가장 강한 욕구가 다른 것을 제압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어느 하나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누가 어떤 행동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의 옳음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왜 행동해야 하는지 ‘理由(reason)를 이미 제공한 것인가의 여부를 밝히는 데로 넘어갈 차례이다.

### 3. 當爲의 認識과 動機 誘發

Sokrates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행한다’고 말했지만, 인간 행동의 기록은 인간이 그들의 의무라고 간주하는 것을 하려는 경향을 늘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많은 도덕철학자들은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sup>18)</sup>를 갖지 않더라도 그가 당위를 갖고 있다고 말함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동기의 존재에 언급할 필요가 없이 도덕판단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동기를 지니지 않은 채 당위를 짚어진다고 말함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덕판단의 분석을 위해서는 동기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Falk는 이런 상반된 견해를 外在論(externalism)과 內在論(internalism)으로 命名하였다.<sup>19)</sup>

Spinoza는 순수하게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지 못하며, 우리가 어떤 욕구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서의 욕구보다 더욱 강한 욕구라고 말했다.<sup>20)</sup> Kant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려는 욕구로부터 독립하여 단지 어떤 행동이 의무라는 생각만이 그 행위의 동기라고 생각했다. Sidwick도 Kant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해야한 한다는 인식

18) 우리말로는 motive 나 motivation 이나 다 動機라고 부르나. 이 章에서 동기라고 말할 때는 motivation 을 가르킨다.

19) Frankena, 'Obligation and Motivation in Recent philosophy, reprinted in Readings in Ethical Theory p.708

20) Hospers, op. cit. p.744

이 또한 그 행동을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믿었다.<sup>21)</sup> 그러나 단순히 사실의 知的 理解만으로 우리를 행동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가정은 잘못 될 것이다. 특정한 행동이 어떠 어떠하고 어떤 효과를 미치리라는 단순한 지식은 우리가 그런 행동이나 효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컨대, 그런 행동은 욕구나 감정(情 緒)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는다.<sup>22)</sup> 실천이성이란 목적을 위한 수단을 발견하는 능력일 것이며, 목적(end)이 된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어떤 사실이 아니라 意識體에 의하여 욕구되는 관계를 함축한다.

‘나는 도덕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명제가 나는 할 수 있다는 명제를 함축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도덕철학자들에 의하여 신봉되는 원칙이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거나, 최소한도 심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당위의 인식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자유의 보장이라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참이지는 않다. 불가능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야 한다(ought)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도덕적 인습이 요구하는 바를 실행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에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못했음에 대하여 罪責을 느낀다.<sup>23)</sup> 따라서 당위가 가능성(ability)을, 혹은 의무가 자유를 함축한다고 할 때, 그 함축은 論理的 含蓄의 강한 뜻으로서가 아니라 文脈的 含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함은 잘못이며, 행위자가 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을 때라면 도덕판단을 내세울 이유가 사라진다.

Nowell-Smith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傾向性(disposition, inclination)을 가진다’는 것보다 더욱 강하게 ‘나는 할 것이다’를 함축한다고 보았고, 그것은 어떤 결단을 나타낸다고 말한다.<sup>24)</sup>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데, 나는 할 것인가’라는 물음 자체가 생

21) D.P. Gauchier (ed), *Morality and Rational Self-Interest*, p.5

22) G.C. Field, *A Criticism of Kant*, reprinted in op. cit. p.705

23) R.M. Hare, *Freedom and Reason*, 1963, p.52

24) Nowell-Smith *Ethics* pp.146, 152, 178, 261 참조

길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절대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도덕판단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Sokrates는 무엇을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덕적 弱點’<sup>25)</sup>이라는 현상을 거부하였지만, 죄인들 자신이 自制하는 데 충분치 못한 능력을 *ἀρπαλία* (ill-temperature)라고 불렀고, Kant가 性向(Neigung, inclination)이라고 부른 현상은 엄연히 존재한다. St. Paul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짓은 내 의지에 반대되는 바 뿐이다. 내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서도 육신에 있어서는 죄의 법에 매어있다’<sup>26)</sup>이라고 탄식한다.

Falk는 당위가 가능성을, 가능성이 동기를 함축한다고 하며, Aiken은 당위가 책임을, 책임이 동기를 전제한다고 한다.<sup>27)</sup> 어쨌거나, 도덕이 요구하는 是認(sanction)은 도덕에 필연적으로 隨伴한다고 보는 견해와, 도덕은 심리학적 시인을 부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견해의 대립은 도덕철학에서나 보통 도덕적 思考 속에서 혼동되어 判明하게 대립된 긴장은 아니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도덕판단의 동기에 있어서 그것을 두가지로 구별할 필요를 느낀다. 하나는 순수하게 도덕적인 동기이며, 다른 하나는 超越的인 能力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과 형벌의 기대로 나타나는 동기이겠는데 후자는 전자를 강화할 뿐이며, 부차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동기는 도덕판단의 理由(reason)이기는 하지만, 동기(motivation)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하튼, 문제는 여전히 미묘한 채 해결되지 않고 있다.

#### 4. 利己主義의 評價

##### a. 利己를 考慮함은 合理的인가?

누구나 행동의 도덕적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근거에 따라 행동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 도덕이 요구하는 바와 이성이 요구하는 바가 양립될 수 없다면 도덕은 하나의 妄想이고 만다. 그런데, 행동의 이기적 근거도 역시

25) 영미윤리학자들이 ‘moral weakness’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 ‘의지의 脆弱’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26) 로마서 7장 15~25절 참조

27) Frankena, op. cit. p. 720

합리적이려면, 우리는 두개의 양립되기 어려운 행동의 합리적 근거를 갖게 되는 모순에 직면한다. 이기적인 근거가 과연 합리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 취급할 문제이다.

이기주의자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기주의가 이성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Sidwick 는 먼저 옳거나,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이성적, 합리적인 것으로, 또 궁극적인 목적을 이성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며, 당위의 인식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마련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기주의를 이성적인 것으로, 그것이 채택하는 원리를 自명한 것으로 본다.<sup>28)</sup> 그는 利己主義와 公利主義를 利己的 快樂主義와 普遍的 快樂主義로도 구분하는데, 그 두개가 다 자명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oore 는 이기주의가 결코 이성적일 수 없다고 하며, Sidwick 에 대한 反對論證을 편다.<sup>29)</sup> 무엇이나 그 자체로 선한 것을 목적해야 되는데, 이기주의적 원칙이 가르치는 대로 각자가 자신의 最大量의 쾌락을 목표로 하면, 각자 자신의 쾌락이 그 자체로 선할 수는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나의 쾌락만이 그자체로서 선하다면 너의 쾌락은 그 자체로서 선할 수가 없고, 따라서 각자의 쾌락이 유일한(sole) 선일 수 없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모순을 포함한다.

Moore 뿐만 아니라 Medlin 도 그의 논문<sup>30)</sup>에서 이기주의를 공격하는데, 이기주의가 모순은 아니더라도 不整合을 포함함을 보여줌으로 이기주의의 合理性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는 情緒主義者(emotivist)로서 이기주의가 부정합한(inconsistent) 욕구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늘 사람들에게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지시한다고 말한다.

Kalin 은 ‘이기주의를 변호하여’ 라는 題下의 논문<sup>31)</sup>에서 Medlin 에 대하여

28) Henry Sidwick, The method of Ethics, reprinted in morality and Rational Self-Interest pp.27~35 참조

29) G.E. 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3 section 58-61 참조

30) Brian Medlin, Ultimate Principles and Ethical Egoism, 1957, reprinted in Morality and Rational Self-Interest

반박하는데, 그의 반박은 Medlin 에 뿐만 아니라 Medlin 과 Moore 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 그의 논증이 완전히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착안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기주의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도덕판단은 판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判斷者는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Frankena 가 이기주의의 難點을 지적<sup>32)</sup> 한 것은 타당한 것이 못된다.

Kalin 은 어떤 사람이 어느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所見(belief)과 행동을 수행하려는 欲求(desire)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Medlin 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sup>33)</sup> 우리는 競技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이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지만, 상대방이 이기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고, 상대방으로서는 그들대로 그들이 이기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만 좋은 것이다. 가치의 평가에는 가치의 물질적 개념(material mode of concept)—누구에게나 공통된 선(가치)이 있다—과 형식적 개념(formal mode of concept)을 나눌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개념의 가치로 설명된다면, 相異한 사람들에게 대한 궁극적 가치가 보통 같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선이라는 것이지 그 종류의 特例가 같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기주의자는 共通善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좋음이란 사람에 따라서 다르며, 행위의 최고 원리는 각자의 다른 목표나 태도에 의존한다고 믿는다.

Moore 의 입장은 행위의 타당한 목표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假定에 의존한다. 만일 누가 좋음이란 어느 특정한 사람과 관련하여서만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이기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데 심한 난점을 발견하지는 않을 것이다. 各者가 자기에 대하여 좋은 것을 목표해야 하는 것이 이성

31) Jesse Kalin, In Defense of Egoism. 1968 reprinted in *Morality and Rational Self-Interest*

32) W.F. Frankena, *Ethics*, 1963 pp.16~18

33) Kalin, *ibid.* pp.73,74

적 행동의 원칙이 될 터이니, 여하튼, 윤리학의 보편화 요구(the universality requirement)를 받아들이면서 이기주의를 채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b. 道德의 動機는 利己에 立脚해 있는가?

Kant는 義務感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동기는 경향을 따른 것이라 보고, 도덕의 제1원리를 그것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 시도는, 가능한 오직 두개의 동기는 의무와 이기인데, 의무감으로서 유발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이기적(selfish)이라는 가설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무와 이기로 동기를 나눈은 그리 정확한 구분은 아니다. 규범의 내용이 충분히 근거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규범의 실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행위자 자신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도, 혹은 다른 사람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도 그것이 어떤(심리적) 강제력을 지닌 의무로 볼수 있다. 도덕적 의무란 보통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복리를 고려하는 의무'(autonomous other regarding duty)<sup>34)</sup>를 뜻하며, 이기주의자의 논점은 바로 이런 견해에 화살을 돌리는 데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기주의는 이기적 쾌락주의라고도 불리우는데 쾌락주의는 이기주의를 必伴하지 않는 한 중요한 철학 이론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이기적 쾌락주의를 윤리학설로 떠받드는 근거는 心理的 利己主義에 있다. 쾌락주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행위자에 대하여 쾌락을 가져옴을 혹은 고통을 피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그것이 이기주의와 결탁하여 행위자가 선택하는 행동은 오로지 그 자신의 쾌락(혹은 이기)인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만 합리적이라는 이론으로 된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Butler가 '自愛'(self-love)라고 부르는 것만이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원리이며, 自己滿足(self-satisfaction)이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타적인 동기는 있을 수 없거나, 그런 행동은 얼간이가 갖는 특권이라고 한다. 자선사업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感謝의 情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좋은 評判을 얻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자비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런 행위도 역시 이기적 충동에 입각해 있고, 자선가의 마음

34) G.v. Wright, The Varieties of Goodness, 1963, p.182

을 떠받드는 것은 위장된 이기주의라고 한다.

Hutcheson은 도덕감정(moral affection)을 自愛나 私的 觀心의 욕구로 환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稱頌과 慈悲(心)로 나누었으며, 利己로부터 慈悲(心)을 끌어내려는 두개의 試圖을 論破하였다.<sup>35)</sup> 그러나, 심리적 이기주의를 반대하는 이론은 Hutcheson의 心理學說로 支持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쾌락주의 이기주의 행복주의(psychological eudaimonism)에 공통된 논리적 난점을 지적함으로써 補強되어야 할 것이다.<sup>36)</sup> 그것은 욕구의 대상과 '원하다' '좋아하다' '즐기다' 등의 好意的 態度를 나타내는 동사(pro-attitude verb)의 內在的 對格(internal accusative)의 혼동에 입각해 있다. —사람은 술, 음식, 혹은 이웃의 행복을 바란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만족을 바라지는 않는다.<sup>37)</sup> 나의 욕구, 경향, 기호, 享受(enjoyment)는 나의 것이라는 명제는 동어반복이지만, 내가 바라거나, 좋아하거나, 즐기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의 쾌락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그런 논의가 이기로부터의 동기가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는 주장을 전혀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Prichard는 사람들이 두개의 형태의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Hobbes는 도덕이란 이름아래 우리가 이기를 추구함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바꾼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기를 추구함으로써 상호 파멸됨을 중지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Hume은 도덕감정이 자애나 이기로부터 유래되지는 않더라도, 이익을 고려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덕감(moral sentiment)이 조장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기주의가 단지 이기적인 동기만을 우리 행위의 동기로 설명한다면 그것이 지탱되기는 어렵다. 우리는 많은 대상에 향하는 여러가지 감정을 갖고 있으며 그중의 어떤 것은 이기적이고, 다른 어떤 것들은 이타적이다. 단지 이러한 동기들이 충돌할 때 그것을 함께

35) Francis Hutcheson, *Virtuous Affections and Self-Love*, 1729, 참조  
reprinted in *Morality and Rational Self-Interest*

36) G.H.V. Wright. op. cit. p.182 참조

37) Nowell-Smith, *Ethics*, pp.141,142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최대량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동기로 움직이냐는 것이 문제이다.

c. 利己主義는 하나의 倫理學說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까지 살펴온 바에 의하면, 사람들의 동기는 도덕적인 것과 이기적(self-interested)인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기적인 동기에 입각하여 일관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의 행동 근거를 이기주의라고 잠정적으로 부를 때에, 그 이기주의가 단순한 주먹구구式의 행동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原則으로 근거지워주는 것인가, 혹은 윤리학적 이론일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채택되기 바람직한 이론인가를 살핌이 지금 당면한 문제이다.

윤리학적으로 공평되는 바 이기주의의 주장은 ‘비록 나의 이기가 다른 사람의 이기와 충돌하거나, 혹은 조화될 수 없는 때에 있어서도 나 자신의 이기에 따라 행동함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러한 명제는 목적론적인 요소에 입각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화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법칙주의적 요소도 제공하고 있다.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하등의 관련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이기주의자는, 다만 各者가 그들 자신의 이기를 추구함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경우에, 그가 그의 이기를 추구함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해야만 한다.<sup>38)</sup> 이렇게 해석할 적에, Medlin 이 윤리학적 이기주의는 ‘보편적, 定言的(universal & categorical)이기주의이어야 하나 그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발언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으며 일관된 이기주의자의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sup>39)</sup> 그는 이기주의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난을 하는 셈이다.

도덕이란 ‘어떤 행동 과정의 이성적 정당화’<sup>40)</sup>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은 도덕적 질문이며, 이기주의자는 충분히 이성적인 도덕적 추리(moral reasoning)를 통하여 답을 구한다. 그렇다면, 도덕도 이성적인 것이며 여기

38) Kalin, op. cit. p.75

39) Medlin, op. cit. pp.56-63 참조

40) Kalin, op. cit. p.86



의 추구도 이성적인 것이어서 양립될 수 없는 것을 함께 인정하는 Sidwick의 모순에 빠지지 않는가 염려할지 모른다.

우리는 도덕과 이기의 선택에 있어서 熟考 끝에 어느 편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결과로서는 도덕의 형식으로 혹은 이기의 추구로서 한 편으로 나타나게 된다. 내가 진실로 보여주고 싶은 바는 ‘도덕’과 ‘이기’가 相補的이며, 어느 편을 택하거나 다른 한 편이 고려되어야 하며, 도덕이 이기를 보장하고 이기가 당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는 Hobbes가 과장해서 표현한 대로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전쟁하는, 상태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빈약하고, 醜雜하고, 野獸的이며, 缺乏된’ 것이다.<sup>41)</sup> Hobbes는 무한정한 이기의 추구의 결과는 전쟁과 같아 아무의 이익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법이 제정한 도덕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물론, 도덕을 위하여 이기의 추구를 억제한다는 것이 한 개인으로서 볼 때 자살적일 수 있지만, 모든 개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軍備競爭의 도덕적 해결은 非武裝의 상호 협정이라 할 수 있다. Hobbes는 도덕과 이기가 진정으로 대립된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도덕을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가장 훌륭한 공통된 근거로 취급한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 규약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도덕사회 안에서도 역시 경쟁하며 살고 있다. 인간은 ‘homo sapience’ 뿐만 아니라 ‘homo economos’이며, ‘경제’란 개념이 ‘무한한 욕구와 資源의 稀少’에서 성립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은 제한된 전체의 福利量 속에서 자기의 몫을 더 분배받으려는 동기에 의하여 지배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取할 수 있는 것을 그네들이 취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다. 우리는 ‘競技’<sup>42)</sup> 속에서 살고 있으며, 때로는 이기기 위하여 반칙을 택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반칙도 규칙의 체계 속에서 규정된 것이며, 단지 반칙 탓으로 비난

41) Thomas Hobbes, Leviathan, reprinted in morality and Rational Self-Interest p. 135

42) 규칙에 따르는 경쟁이란 뜻에서 사용했다.

받지는 않는다.

이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있고, 그것을 채택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체계화되어 공공연하게 傳受되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體得하는 원리이며, 그 원리가 공식화된 教條(doctrine)라기 보다는 정신으로서만 존재하는 不文律과도 같다고 하겠다.

이렇듯, '도덕'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려면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어야 하며, 도덕이란 하나의 '상표'<sup>43)</sup>에 불과하다.

### III. 結 論

이제까지 비교적 一貫된 논리의 흐름 중에서도 分析의 明證性에는 未洽함을 느끼는 在來 도덕철학자들이 犯한 誤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의 力不及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情緒主義者(emotivist)들이 倫理學은 學으로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보여주는 도덕철학의 미묘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規範倫理學의 窮極的인 목적은 도덕이 어떻게 이기주의를 극복하느냐를 밝히고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論者는 그런 노력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몹시 懷疑하는 바이다. 이제까지 비교적 이기주의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으면서도, 한편 나는 이기주의의 緩和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餘論을 전개한다.

① 원시적인 윤리(primitive ethics)는 엄격한 의무나, 禁忌, 관습, 誠命으로 이루어지는 법칙주의적인 것으로서, 그것이 모든 관련된 구성원들의 現狀態를 유지함으로써 이기의 충동을 방지하고, 규정된 목표로부터 이탈된 행동을 비난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현존하는 관습을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윤리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局面이 전개 되었다. 이 국면에서는 율법의 文句가 아니라, 행동의 동기와 사회적 관습의 결과가 강조된다. 처음에는 법칙주의적 經典이 절

43) 상표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나, 내용물을 추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는 그것을 i) 껍데기, 형식이란 뜻에서, ii) 내용을 보장하고, 추천한다는 의미에서 iii) 불리워지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채택했다.

대적이었지만, 목적론적인 평가 기준(teleological criterion)이 그것을 확대한 셈이다.<sup>44)</sup> 윤리의 발전에 있어서 두 국면은 구약과 신약의 뚜렷한 對比에 반영되어 있다. 安息日에 聖殿에서 병자를 고치는 예수를 바리새인(Pharisees)들이 비난하자, 그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나? 목숨을 건다는 것이 좋으나, 죽이는 것이 좋으나?’고 답변하였다.<sup>45)</sup> 그는 낡은 관습에 대한 형식적인 존경보다 人間苦의 방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모세의 十戒는 그냥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 뿐이지, 계명의 준수에서 생기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新約에 이르러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네형제가 구원을 얻으리라’ ‘義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등, 어떤 보상을 약속한다. 물론, 이렇게 해석한다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그르칠 우려가 없지 않지만, 여하튼, 그것이 계명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동기를 강화시킴을 지적함이 틀린 것은 아니다.

② 흔히 목적론자들은 도덕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도덕적 당위를 ‘엄밀한 의미에서’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받는다. 목적론자들이 법칙주의적 개념들을 행복, 욕구, 쾌락 등으로만 정의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택해야 하느냐는 실천적 문제와 우리가 사실상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는 심리적 문제를 혼동하는 한, 그러한 비난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렇더라도, 목적론자들이 도덕을 부정한다든가, 高邁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정도에 이르면, 그것은 당치도 않는 못난소리이다.

목적론자라고 해서 전혀 규칙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어떤 규칙을 채택하느냐는 것이지, 전혀 규칙없이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사실상, 규칙의 그물집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성한 사람에게 목발이 필요없듯이, 불필요한 규칙을 지니고 살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때때로 무거운 지팡이를 던지 버리기가 아까워서 계속 지니고 다니기도 한다.

③ 이기주의자들이 이기주의의 원칙을 固守하더라도 그들의 태도를 완화

44) Stepen Toulmin, The Place of Reason in Ethics, 1968, pp.137, 141 참조

45) 누가복음 4장참조.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자기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자신의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넓혀지는 셈이며,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가 가능한 태도를 기른다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 「自重自愛」라는 표어에 있어서 ‘자아’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그만큼 행복할 가능성이 확대된다. 더욱이 이기주의자는 아무리 이기를 추구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사회에서 도덕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자의 이기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도덕에 따를 때에 도덕을 위배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덕은 이기의 충동을 방지함으로써 이기를 보장하는 것이지, 이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완전히 公平한 세상—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이기주의와 도덕의 구별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완성된 도덕사회에서는 직접적인 이기의 추구는 비난받고, 도덕대로 처신하기를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도덕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덕을 준수해야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그런 사회에서는, 도덕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손해인 듯 하나 艱眼目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이로우리라는 계몽된 이기주의자의 感傷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기를 좇는 행동보다 늘 불리할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대도 전혀 가질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기의 추구만이 오직 합당한 처신으로 알게 되며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의 세대에서는 이기의 추구를 위한 전쟁 상태가 보다 가열될 것임이 더욱 분명하다. 도덕교육이란 經典이나 教訓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자라서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들고 理想化하기 마련이다.

부도덕한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행동하라고 권고함은 도덕가의 임무에서 벗어난다. 도덕적인 의무는 도덕사회에서만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Wilfrid Sellars & John Hospers (ed.), *Readings in Ethical Theory*, Appleton-Century-Crofts, 1970 (2nd ed.)
- David P. Gauthier (ed.), *Morality and Rational Self-Interest*, Prentice-Hall, Inc., 1970
- G. E. 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03
- Plato, *The Republic* (tr. H.D. P. Lee), Penquin Books, Inc., 1967
- Immanuel Kant,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tr. T.K. Abott), Henry Regnery Co., 1949
- William K. Frankena, *Ethics*, Prentice-Hall, 1963
- P.H. Nowell-Smith, *Ethics*, Penquin Books, Inc., 1967 (6th ed.)
- Stephen Toulmin, *The Place of Reason in Ethic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68
- Georg Henrik von Wright, *The Varieties of Goodness*, Routledge & Kegan Paul, 1968 (3rd ed.)
- Alf Ross, *Directives and Norms*, Routledge & Kegan Paul, 1968 R.M. Hare, *Freedom and Reas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3
- Carl Wellman, *The Language of Eth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 *Résumé*

## Moral Motivation and Self-Interest

**Nak-joong Kim**

Since deontological theories had overridden teleological ones in the field of ethics after Kant, attack on egoism became a sign of departure as a moral philosopher. And, on the viewpoint of utilitarian ethicists, egoism cannot be permitted, either. The ultimate end of normative ethics is to make clear that morality is far-off from pursuit of self-interest and to present how to overcome egoism. The writer of the present paper is much doubtful whether the end would be gained and,

moreover, would rather maintain that moral motivation is enforced by consideration of self-interest and that ethical egoism is a desirable theory in moral philosophy.

The question 'Why be moral?' or 'Why ought we to do what is right?' is old, but not trivial one. We do it: a. in pursuit of self-interest, b. because it is divine command, c. in pursuit of common-interest, d. because it is right. The reason why be moral is decided in a rational way according to what kind of a life he wishes to live or what kind of a person he wishes to be. But, consideration of self interest is the basic reason and, in case of conflict among reasons, the one usually controls the others. Nowell-Smith says that 'I ought' is used to express a verdict or decision and that, therefore, the question 'I ought, but, but will I?' is not arisen. But the case is everywhere that one accepts a moral judgment and cannot do it. Moral motive is a reason of moral judgment but it does not extend to motivation.

If ethical egoism explains that only egoistic motive is our whole motive of conduct, it is difficult to be supported. We have various sentiments or affections about lots of objects and among them the one is egoistic and the another is altruistic. But, when those motives conflict with one another, the question which is motivated for the sake of gain of the possible maximum amount of happiness remains.

Consideration of self-interest is the dominative motive of our conduct and morality is based on self-interest if it is to have practical effort. Morality is a mere label.